

혁명적원칙성, 그에 기초한 창조성과 령활성, 일관성을 견지하는것은 우리 당의 령도원칙

김성일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을 벌려나가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자면 우리 당의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령도원칙, 령도예술을 잘 알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힌 령도원칙에서 중요한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성, 그에 기초한 창조성과 령활성, 일관성을 견지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원칙성에 기초한 높은 창조성과 령활성, 로선과 정책에서의 일관성, 이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여온 중요한 령도원칙이고 령도예술이며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과 정책의 특징이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8권 300페이지)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성, 그에 기초한 창조성과 령활성, 일관성을 견지한다는것은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모든 사업을 주객관적조건,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벌려나가며 조성된 정세와 정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언제나 당의 로선과 정책집행을 편향없이 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적원칙성, 그에 기초한 창조성과 령활성, 일관성을 견지하는것은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령도원칙의 중요내용이다.

우리 당의 령도원칙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혁명적원칙성을 확고히 견지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혁명적관점과 립장에서 보고 대하며 자기 나라 혁명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혁명적원칙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혁명위업은 혁명적원칙성으로 하여 다른 사회적운동들과 구별되며 그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위업으로 된다. 혁명적원칙성을 지켜야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지키고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성과 령활성을 보장하면서 혁명을 편향없이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일군들은 혁명적원칙성을 고수하는 문제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모든 사업에서 혁명적원칙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 당에 있어서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성을 견지하는것은 다름아닌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는것이다.

사회주의원칙은 노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명도원칙에서 가장 선차적인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가장 높은 단계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 끊임없이 전개되어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을 통하여 그 종국적인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원칙에는 노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이 가장 집중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해나가는 여기에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성과 명활성, 일관성을 관철해나가기 위한 주요한 담보가 있다.

사회주의원칙을 지킨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회주의의 근본리념과 본성에 맞게 사회주의적방법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자본주의적인 정치방식과 방법을 철저히 배격하고 사회주의원칙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해나간다는것이다.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을 위한 위업이며 사회주의와 인민대중의 리익은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

사회주의사회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다같이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한 사회이며 사회주의건설과정은 곧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자면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자면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은 사회주의건설을 명도하는데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계급적원칙을 지킨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노동계급적관점과 립장에서 보고 대하며 노동계급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무참히 짓밟힌 낡은 사회를 짓부시고 사람들을 착취와 예속으로부터 해방하며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위업은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사이의 치열한 계급투쟁속에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이 승리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자면 모든 국가사회생활이 노동계급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 건전한 노동계급적생활기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사람들속에서 자본주의적생활풍조에 절대로 물젖지 않도록 하며 적과 평화에 대한 사소한 환상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집단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은 곧 집단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이다. 집단주의원칙은 사회주의의 생명선이며 그로부터의 탈선과 리탈은 불피코 사회주의의 변질과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 사회주의원칙을 어기고 집단주의원리

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 개인주의원리를 받아들이는것은 독약을 먹는것과 같다.

일군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령도원칙의 중요내용은 다음으로 혁명적원칙성에 기초한 창조성, 령활성을 견지하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온갖 교조적태도를 버리고 혁신적인 관점과 립장과 사고방식으로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모든것을 그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유일적인 처방이란 있을수 없다. 혁명과 건설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의 수준과 준비정도가 다르고 그들이 처하고있는 환경도 다르며 그들이 수행하는 혁명임무도 같지 않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에서 하나의 틀에 얽매어 천편일률식으로 사업을 전개해서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 혁명과 건설은 어디까지나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령활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시시각각으로 조성되는 새로운 조건과 환경, 정세와 정황들에 대처하여 그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활용한다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령활성을 견지하는것은 혁명운동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그것은 혁명운동앞에 조성되는 정세와 정황, 혁명투쟁이 벌어지는 조건과 환경이 수시로 변하기때문이다.

현실은 고정불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따라서 어느 시대, 어느 시기에나 다 맞는 고정불변한 형식과 방법이란 있을수 없다. 다른 나라의것이 우리의 현실에 맞을수 없고 어제날의것이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맞을수 없다.

뿐만아니라 혁명운동이 진척되는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으며 일시나마 정세가 불리하게 변하는 때도 있다. 만일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혁명과 건설에서 주동에 서지 못하고 좌왕우왕하게 된다.

혁명운동의 이러한 특성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창조성과 령활성을 견지할것을 필수적요구로 제기한다.

일군들은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변화되는 정세와 정황에 대처하여 기본알맹이를 틀어쥐면서도 사업을 신축성있게 조직하고 전개해나가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데서도 해당 부문,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는 창조적이며 신축성있는 사업방법을 구현하여야 당정책을 정확히, 실속있게 집행할수 있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벽찬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군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는 길이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성과 령활성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혁명적원칙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성, 령활성을 견지하는데서 중심은 혁명적원칙성에 기초하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원칙성을 떠난 창조성, 원칙성을 떠난 령활성은 허용될수 없다. 시대가 전진하고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는것만큼 그에 맞게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성과 령활성을 구현하자면 혁명적원칙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성과 령활성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일군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성과 령활성을 구현하는 문제는 결국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되어있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야 자기 부문, 자기 단위사업과 관련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으며 혁명과업수행에서 창조성과 령활성을 옹계 구현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령도원칙의 중요내용은 다음으로 혁명적원칙성에 기초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집행에서 일관성을 견지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혁명과 건설을 오직 혁명적원칙성에 기초하여 자그마한 편향도 없이 줄기차게 진행하여왔다. 그 결과 우리 혁명은 수정주의, 대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적사조들을 배격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당의 로선과 정책집행에서 일관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우리 당정책이 가장 과학적이며 정당하다는 철석의 신념을 가지고 그 집행에서 좌우경적편향을 범함없이 줄기차게 밀고 나간다는것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집행에서 일관성을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일군들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기회주의적주의주장을 철저히 타파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그것을 유일한 지침으로, 자로 하여 모든 문제를 정확히 분석판단할수 있으며 새것과 낡은것, 잘된것과 잘못된것을 똑똑히 가려볼수 있다. 뿐만아니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하는데서 어떤것이 좌경이고 어떤것이 우경인가를 똑똑히 가려볼수 있으며 자주적대를 튼튼히 세우고 드센 배짱으로 편향없이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집행에서 일관성을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집행에서 일관성이 없는 현상과 강한 투쟁을 벌리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적원칙성에 기초한 일관성을 떠나 그 어떤 다른 방식을 고안해내는것은 레외없이 우리 혁명의 리익, 우리 인민의 리익에 저촉되게 된다.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혁명과 건설에서 튼튼히 들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지침이라는 신념을 뼈에 새기고 당의 로선과 정책집행에서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어야 한다.

일군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그 어떤 주의주장에도 구애됨이 없이 오직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집행에서 일관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혁명적원칙성, 그에 기초한 창조성과 령활성, 일관성을 일관하게 견지할데 대한 우리 당의 령도원칙은 우리 혁명실천에서 그 위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의 령도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원대한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다.